

“그림 사라 대인시장 갑니다”

20일 국내 첫 ‘시장통 아트페어’... 작가 120명 600여 점 출품

“장도 보고 그림도 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에서 아트페어가 열린다.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미나리’와 전남대 문화연구소가 주관한 ‘공간+일상’(단장 천득염 건축학부 교수), 광주일보는 오는 20~25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서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Zero-base Action Art)’(이하 ZAA)를 개최한다. 아트페어는 작가들의 그림을 판매하는 미술시장으로,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갤러리나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경우는 많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장통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아트페어는 생생한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미술품도 살 수 있어 참예권

지역 미술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의 주무대는 시장 빈점포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업실과 현재 영업 중인 점포들이다. 박수만, 진시영, 안희정, 조광섭, 박일규, 김상연, 최은태, 송일근씨 등 지역작가 120명이 6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해 관람객들과 만난다.

이번 ZAA는 침체일로에 있는 대인시장과 척박한 창작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젊은 작가들이 함께 공존과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금의 일부를 상인, 불우이웃과 나누고 작품도 시중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물건값을 깎아

주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출품작가와 작품가격을 흥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를 기획한 박성현 큐레이터(2008 광주비엔날레 제안 색션 참여큐레이터)는 “이번 ZAA는 전통적인 아트페어 틀에서 벗어나 시장의 물건과 미술품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재래시장이라는 장소성을 극대화시켜 문화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동안 박문종, 주홍, 고근호, 신호음씨 등 대인시장의 빈점포를 얻어 작업실을 낸 지역작가 16명의 작업 모습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가 열릴 예정이다. 또 ZAA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제작한 신년 연하장을 저

렴한 가격에 판매한 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신년연하장’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미술학도들이 옛 방앗간 등 빈점포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감(空感)’(2009년1월28일까지)과 ‘미나리’에서 열리는 남도 문화 전시인 ‘묵묵부답’전 등도 선보인다.

천득염 단장은 “지난해 전남대 문화연구소가 주관한 광주 롯데화랑에서 열린 ‘영 아트페어(young art fair)’가 호응을 얻어 이번 아트페어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2008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문화명소로 떠오른 대인시장이 이번 ZAA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社 告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피크닉 선별, 최남파코스 최선의 경력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가 내년 3월1일에도 땀방울이 새겨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민에게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내년 제44회를 맞아 호남권 물론 전국 바닷마을과 그 거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된다.

광주일보사는 3.1절 마라톤의 성공과 더불어 선주하여 앞으로 이번 대회도 더욱 발전하게끔이며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기온의 적정, 호수인물감의 수치를 비롯한 물건을 숙제해 되도록 노력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 일시 : 2009년 3월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당교
- 코스 : 울진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접수마감 : 2009년 1월 15일(목)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1080) 220-0541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학원비, 신고는 9만원 받을 땐 20만원

광주·전남 90곳 적발 등록말소 등 조치

중·고교 수학 전문학원인 광주 북구 M학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월 수강료를 8만6천3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학원이 실제로 받은 수강료

는 월 20만원에 달했다. 신고 액수보다 배를 초과한 11만3천70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보습학원인 광주시 북구 S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학원은 종합반 월 18만8천400원을 수강료로 신고하고 9만여원이 더 많은 27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한달동안 학원들의 불·탈법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학원비를 신고액보다 훨씬 초과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104개 학원에 대해 단속을 벌여 수강료 초과 징수 13곳, 수강료 표시·계시 위반 3곳, 기타 47곳 등 63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곳은 등록을 말소하고 1곳 교습정지 7일, 61곳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명

령 조치를 취했다. 전남은 150곳 중 27곳의 학원을 적발했으며, 수강료 초과 징수 8곳, 수강료 표시·계시 위반 2곳, 기타 18곳 등이었다.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해 받은 학원에 대해 초과 징수분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반환 금액은 광주가 464만7천500원, 전남은 761만5천340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학원의 적정 교습비용은 월 20시간을 기

준으로 보습 단과과정의 경우 5만1천400원이며, 입시 단과는 5만1천700원이다. 외국어 학원은 내국인 강사가 월 5만8천600원, 외국인 강사는 월 8만1천9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비 경감대책’에 따라 지난달 24일 개설된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전국적으로 363건이 접수됐다. 광주 69건, 전남 10건을 비롯, 서울 136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등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상담: (062) 220-1111
홈페이지: http://www.hoonam.ac.kr

남부대학교
2008년 12월 10일 ~ 10월 10일

전남과학대학
2008년 12월 10일 ~ 10월 10일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M타워 5층
062-271-1114

6자회담 핵검증 의정서 절충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를 집중 협의할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8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관련기사 6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핵 검증

을 위한 의정서 마련을 시도한다.

첫날 회의는 특별한 개막식없이 각국 대표단이 회담장에 모두 도착하면서 곧바로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은 첫날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수렴, 정리한 뒤 이르면 둘째날(9일) 오전 검증 의정서 초안을 마련, 각국에 회담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7일부터 이날까지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등 각국 대표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벌여 각국의 견해를 취합해왔다.

조운수 외교부 부대변인은 남북 회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설명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

한 일도 바깥법이 한라산 어린 햇잎으로 가득
실용 한라, 100% 제주 여망일 녹차로 만듭니다

한라산 차밭에서 수확된 한라산 어린 햇잎으로 만든
한라산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유익하며,
한라산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유익하며,
한라산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유익하며,